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의 한자어에 대하여

유근선*

|| 차례 ||

- I. 서론
- II. 선행 연구 검토
- III.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의 한자어
- I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순한글로 작성된 문헌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1545)에서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를 대상으로, 각 한자어의 한자 표기를 파악해 보는 데에 있다. 『부모은중경언해』의 한자어는 그에 대응하는 한자 표기가 문헌 내의 한문 구절에서 확인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먼저 III장의 1절에서는 한자 표기가 문헌 내에서 확인되는 한자어들을 검토하였다. III장 2절에서는 대응 한자가 원문 구절에서 확인되지 않는 한자어들의 한자 표기를 15·16세기의 언해 문헌과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의, 권당, 덕접’은 한자 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구분하였다.

주제어 : 16세기, 불경 언해, 부모은중경언해, 한자어, 현실한자음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후 연구원

I. 서론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1545)는 부모의 10가지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보은과 멸죄의 방법을 설한 1책의 목판본으로, 통상 ‘부모은중경언해’, ‘은중경언해’로 약칭된다. 이 책은 30종 이상의 판본이 전하는데, 그 중 최고본(最古本)은 민간인 오응성(吳應星)이 부모의 극락왕생을 빌며 초역한 판본이며, 현재는 화봉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부모은중경언해』는 한문 원문에 한자음이 달려 있지 않으며, 언해문은 순한글로 쓰여 있어 그간 한자어와 한자음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모은중경언해』에는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가 다수 존재하므로, 그에 대응하는 한자 표기를 밝히고 한자어를 검토하는 것은 문헌의 어휘 연구일 뿐 아니라 16세기의 한자어와 한자음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순한글로 작성된 『부모은중경언해』의 한자어를 정리하여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에 대한 한자 표기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이기문(1965), 남풍현(1968), 조세용(1985가, 1985나, 1991), 이준환(2020) 등이 있다. 먼저 이기문(1965)에서는 주로 16~18세기에 편찬된 역학서에 나타나는 70여 개의 근세한어 차용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남풍현(1968)에서는 15세기 언해 문헌에서 한글로 표기된 ‘가(哥), 가난(艱難)’ 등의 한

어게 차용어들이 한자와 한글로 표기된 용례들을 살펴, 주로 대중적으로 사용되어 언어적 개신을 거친 차용어가 한글로 표기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조세용(1985가, 1985나)에서는 후기 중세국어 문헌의 한자어가 改鑄・歸化되는¹⁾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조세용(1991)에서는 改鑄・歸化되는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전승되지 않고 死語化된 한자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준환(2020)은 중세국어 문헌에서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를 음운론적 측면에서 살핀 최근의 연구로, 한자어에 나타나는 ‘ㄱ~ㄴ’ 대치, 격음화 현상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한자음을 토대로 일부 한자어에 대한 어원을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부모은중경언해』는 30여종에 이르는 이본이 전해지는 문헌인 만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는 이본의 계통을 밝히고 각 이본의 국어학적 특징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되게 이루어졌으며²⁾, 어휘에 대한 고찰은 상세하게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역주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의 해제에 해당하는 김영배(2011)에서는 문헌에 대한 간략한 연구사와 함께 표기・형태・어휘를 검토하며 ‘하전되다, 님당ㅎ다’ 등 총 17개의 어휘에 대해 설명하고, ‘붙임’을 통해 ‘정음으로 표기된 한자어’의 목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자어 전체가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1음절 한자어에 대해서만 한자를 병기해 두었을 뿐, 나머지 한자어에 대응하는 한자 표기에 대한

1) 조세용(1985가:451)에서는 改鑄・歸化語를 “차용 당시의 原語形으로 전혀 복귀할 수 없을 만큼 言衆의 머릿속에 깊숙이 고유어로 認知・意識化되고 浸透・凝固化된 語辭”로 정의하였다.

2) 이 책의 판본에 관해서는 송일기·유재균(2000), 송일기(2001), 이호권(2000, 2005), 신중진(1996), 유필재(1997), 남경란(2019), 이옥희(2020), 박철민(202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유근선(2021)에서는 16세기 불경 언해의 한자음에 대해 논의하며 『부모은중경언해』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문헌에 나타나는 한자어 목록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역본 『부모은중경언해』(화봉문고본)에서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들의 한자 표기를 파악해 보고자 하며, 이는 16세기 문헌에서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에 대한 연구의 일환이자 유근선(2021)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수정·보완을 위한 것이다.

Ⅲ.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의 한자어

1. 문헌 내에서 한자 표기가 확인되는 한자어

먼저, 한문 원문에 쓰인 한자어가 직역되어 언해문에 그대로 쓰인 경우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가. 원문: 若是五逆之子 擘破阿孃胞胎<6a>
 언해문: 오역긔 아드룬 어피 비를 헤티며<6a>
 나. 원문: 生得此身 猶如十恩<6a>
 언해문: 이 몸이 나피 열 가짓 은니라<6a>

(1가)에 제시한 원문의 ‘五逆’은 언해문에서 ‘오역’으로 직역되었으며, (1나)의 ‘十恩’은 ‘열 가짓 은’으로 언해되었다. 따라서 ‘오역’과 ‘은’의 한자 표기가 ‘五逆’과 ‘恩’에 해당됨을 원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1)과 같이 대응하는 구절에서 바로 직역된 것은 아니지만, 문헌 내의 한문 원문에서 언해문에 쓰인 한자어가 한자로 표기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 가. 원문: 衆人歸敬<1a> / 不生恭敬<11b>

언해문: 사름미 다 공경헝거든<1b>

나. 원문: 白佛言<22a> / 惟願世尊<17b>

언해문: 세존의 슬오되<22a>

(2가)의 ‘衆人歸敬<1b>’은 ‘사름미 다 공경헝거든’과 같이 언해되어 이에 대응하는 한문 구절에서는 한자어 ‘恭敬’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헌 내에 ‘不生恭敬<11b>’과 같은 원문 구절이 나타나므로 ‘공경’에 대한 한자 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나)의 ‘白佛言<22a>’은 ‘세존의 슬오되’로 언해되었지만, ‘惟願世尊<17b>’을 통해 ‘세존’에 대응하는 ‘世尊’을 볼 수 있다.

예문 (1), (2)와 같이 문헌 내 한문 원문에서 한자 표기가 확인되는 한자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³⁾

〈문헌 내에서 한자 표기가 확인되는 한자어〉

가수(假使)<18a>	간(肝)<6a>	감심(甘心)<6b>
강산(江山)<10b>	기궤-(改)<9b> ⁴⁾	겁(劫)<6b>
경(經)<1a>	공경(恭敬)<11b>	공둥(空中)<23b>
관산(關山)<10a>	교령(敎令)<13b>	구궤-(求)<8b>
권(卷)<24b(3)>	남녘(南-)<1a> ⁵⁾	남궤(男子)<2b>
녀인(女人)<2b> ⁶⁾	년궤(蓮-)<9b>	념불(念佛)<3a>
대보부모은동경(大報父母恩重經)<26b>		대중(大衆)<1a>
덕(德)<3b>	딩궤-(定)<7b>	데궤(弟子)<2a>

3) 출처는 1회에 한해 제시하였으며, 해당 한자어가 조사와 연결된 형태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밝혀 두었다.

4) ‘改’는 ‘기궤눛도다<9b>’에서 ‘·’가 보이지 않으나, ‘改’는 海韻 1等 開口에 속하며,

둥흥-(重)<6b>	등(燈)<20b>	디옥(地獄)<22b>
명(命)<11a>	미가(未嫁)<16b>	박낙(撲落)<4a>
반룡(盤龍)<9b>	발원(發願)<26a>	빅흥-(倍)<7b>
빅천(百千)<18a>	병(病)<7a>	복(福)<22b>
봉행(奉行)<26b>	부모(父母)<1a>	브효(不孝)<11b>
스면(四面)<23b>	스싱(四生)<1b>	스천(四千)<5a>
삼계(三界)<1b>	삼년(三年)<12b>	삼만팔천(三萬八千)<1a>
삼백(三百)<5a>	상해(常-)<11a>	싱장(生藏)<5b>
성(城)<23b>	세존(世尊)<1b>	소히(疏-)<16b>
손흥-(損)<9b>	슈고(受苦)<7a>	슈미산(須彌山)<5b>
신고(辛苦)<3b>	아란(阿難)<1a>	양(羊)<12b>
업(業)<10b>	업산(業山)<5b>	연지(臙脂)<2b>
오곡(五穀)<5b>	오역(五逆)<6a>	오장(五臟)<7b>
옥(獄)<14b>	옹호(擁護)<24b>	왕사성(王舍城)<1a>
원흥-(願)<12b>	위흥-(爲)<3b>	은(恩)<1a>
은덕(恩德)<22a>	의종(依從)<13b>	인흥-(因)<14b>
인연(因緣)<6b>	일시(一時)<1a>	일야(日夜)<10a>
조탄(自嘆)<16a>	장(藏)<5b>	전혀(全)<16a>
점점(漸漸)<13b>	정(情)<8a>	정(精)<6b>
죄(罪)<22b>	죄인(罪人)<17b>	진흥-(盡)<11a>
천히(賤-)<14b>	친흥-(親)<9a> ⁷⁾	타향(他鄉)<10a>
탄흥-(憚)<12b>	토흥-(吐)<8a>	팔만(八萬)<5a>
한도(-刀)<23b>	향흥-(向)<5b>	형대(兄弟)<13b>
혹(或)<14b>	혼침(昏沈)<7a>	회택(懷胎)<4a>
후(後)<2b>	휘(靴)<2b>	

소창문고본에서는 ‘기’로 나타난다(유근선 2021:12).

5) 남녀고로<1a>

6) 녀이늑<2b(2)>, 녀이늑<2b, 3a>

7) ‘친/칭호온<7a>’에서는 ‘친’인지 ‘칭’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나 소창문고본에서는 ‘칭’으로 표기되었다. 이 외에는 모두 ‘친흥<9a, 13b>’으로 나타난다(유근선 2021:12).

‘한도(-刀)’는 ‘한도 갈히[劒刀刀輪]<23b>’로 언해된 것인데, 유근선(2021:133)에서는 ‘한도’를 ‘環刀’로 보았으나⁸⁾, 방중현(1963:319)에서는 일찍이 『眉岩集』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이 ‘大’의 의미를 가진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 (3) 初九日 如釋類合劒字云한도 礪城君以爲當作환도 盖徒見兵書以環刀置簿 不知大之爲한也 卽還正也 (『眉岩集』 제 14卷 萬歷五年 五月)

이는 유희춘(柳希春)이 『신증유합』(1576)을 편찬하면서 남긴 기록으로, 『신증유합』에서 ‘劒 한도 검<上28b>’은 ‘환도(環刀)’가 아니며 ‘한도’의 ‘한’은 ‘大’의 의미를 가진 것임을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본고에서는 유근선(2021)의 견해를 수정하여 『부모은중경언해』의 ‘한도’ 역시 ‘한도(-刀)’로 보고자 한다.

한편, ‘년꽃(蓮-)’의 ‘蓮’과 ‘박낙(撲落)’의 ‘落’은 來母字임에도 ‘ㄹ’이 아닌 ‘ㄴ’으로 표기되었다. ‘년꽃(蓮-)’은 어두 위치에 놓여 이른바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은 것이며, ‘박낙(撲落)’의 ‘낙’은 ‘ㄹ’ 이외의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ㄹ’ 비음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진호 2008). 또한 ‘휘(靴)’는 차용음으로, 『훈몽자회』에는 ‘靴 휘 화<中:22b>’로 나타난다.

2. 문헌 내에서 한자 표기가 확인되지 않는 한자어

『부모은중경언해』에는 한문 원문에서 한자 표기를 확인할 수 없는 한자어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15·16세기 언해 문헌, 『조선왕조

8) 『李朝語辭典』에 ‘한도’는 ‘환도’로 풀이되어 있으며, 『역주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2011:182)에서도 ‘한도(環刀)’로 주해하였다.

실록』 등을 검토하여 한자 표기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부모은중경언해』는 16세기 언해 문헌이므로 1차적으로는 15·16세기 언해 문헌상에 나타나는 한자어를 검토하였으며, 여기에서 확인되지 않는 한자어는 15·16세기까지의 한문 자료에 나타나는 한자어를 살펴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의 한자 표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15·16세기 언해 문헌에서 한자로 표기된 용례가 나타나는 한자어는 다음과 같다.

〈15·16세기 언해 문헌에서 한자 표기가 확인되는 한자어〉

각각<26a>/各各<석상3:13a-b>	가난<18b>/艱難<석상6:13a>
<u>간당<7b>⁹⁾/肝腸<장수33b></u>	간수<6b>/看守<계초(서봉사판)3a>
골수<21a> ¹⁰⁾ /骨髓<월석1:13a>	과실<5b>/果實<석상6:31b>
교수<26a>/教授<석상6:46b>	과절<7b>/氣絶<구급방下:21a>
남진<16b>/男人<내훈1:60b>	내종<11a>/乃終<훈언:13b>
네도<12b>/禮度<내훈2下:70b>	노흐<16b>/怒<석상19:30a>
<u>넴당<7a>/臨當<능엄6:27a></u>	넋답<13b>/對答<석상6:14b>
대신<10b>/代身<속삼강孝:2a>	당성<23b>/長常<석상9:16b>
도죽<15a>/盜賊<월석11:8a>	다혜<5a>/智慧<석상9:7a>
문안<17a>/問安<속삼강孝:33a>	백세<11a>/百歲<월석21:58b>
번<3b>/番<월석15:86b>	법<13b> ¹¹⁾ /法<석상6:11a>
분<2b>/粉<석상3:26a>	스렴<10a>/思念<월석8:15b>
스양<8a>/辭讓<영가上:48b>	샤향<2b>/麝香<구급방下:65a>
<u>상심<15a>/傷心<내훈2上:36b></u>	<u>상심병<14b>/傷心病</u>
<u>슈상<16a>/殊常<영가下:106b></u>	슈욕<13b>/受辱<삼강烈:18b>
<u>습성<13b>/習性<육조中:52b></u>	안부<16a>/安否<석상6:1b>
양열<23b> ¹²⁾ /殃孽<남명집上:61a>	양죽<9b> ¹³⁾ /樣子<삼강孝:10a>
영영<14b>/永永<관음경11b>	운<18b> ¹⁴⁾ /運<원각下1-1:16a>
은혜<9a>/恩惠<석상6:4b>	음식<5b>/飲食<월석2:25b>

이싱<2b>/이生 싱<야운(서봉사판)6b>	인뉴<11b>/人類<법화3:19b>
일만<24b>/一萬<능엄4:17a>	일천<10a>/一千<석상6:18b>
즈세<3b>/仔細<법화序:21b>	즈식<3b> ¹⁵⁾ /子息<석상6:3b>
잠간<10b>/暫間<월석23:9b-10a>	전<22b> ¹⁶⁾ /前<월석14:43b>
전싱<2a>/前生<석상6:9a>	<u>조심<14b>/操心<맹자13:12a></u>
좌상<15b>/坐床<두시9:21a> ¹⁷⁾	진실<10a>/眞實<석상9:28b>
처즈식<16a>/妻子息<월석22:37b>	편흐-<10b>/便<소학凡:3a>
편안<8b>/便安<훈안:3a>	<u>한삼<2b>/汗衫<빈노下:51a></u>
해흐-<6a>/害<석상9:17b>	형실<13b> ¹⁸⁾ /行實<월석17:42b>
혐의<9a>/嫌疑<능엄2:123a>	혼인<12b>/婚姻<석상6:16a>
화동<13b>/和同<내훈3:25a>	효도<15a>/孝道<석상6:29a>
효즈<6a> ¹⁹⁾ /孝子<삼강孝:20b>	

위 목록에서 밑줄 친 한자어는 언해문이 아닌 해당 문헌의 한문 원문에서 한자로 표기된 형태가 확인된 경우이다.

-
- 9) ‘腸’은 澄母 陽韻 3等 開口에 속하여 ‘당’으로 표기되나, 여기서는 획이 떨어져 ‘당’으로 나온다.
- 10) ‘골슈’에 대응하는 한문 원문에서는 ‘打骨出髓<21a>’를 확인할 수 있다.
- 11) 버블<13b>
- 12) 양어를<23b>
- 13) ‘양즈(樣子)’는 1회 ‘얏즈<9b>’로 나타나지만, 이외에는 모두 ‘양즈<9b, 9b, 15b>’로 쓰이며, 소창문고본에서도 해당 부분이 ‘양’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얏’은 ‘양’의 오류이다(유근선 2021:12).
- 14) 우늘<18b>
- 15) ‘쫘즈식<16b>’도 나타난다.
- 16) 저녀<22b>
- 17) 『삼국유사』 권4에서도 ‘至坐床下無一語(좌상 아래에 이르러 말 한 마디 없었는데)’가 확인된다.
- 18) 형시리<13b>
- 19) ‘효즈니<22b>’에 대응하는 한문 원문은 ‘孝順之子<22a>’에 해당된다.

(4) 가. 간당(肝腸)<7b>

원문: 我之戀惜 猶如體腦 亦如肝腸 甚於性命<장수33b>

언해문: 내의 앓겨 호몬 신용이며 므슴 어딘 주를 더욱 둥히 너기슴
다니<장수39a>

나. 님당(臨當)<7a>

원문: 臨當被害 ㅎ야<능엄6:27a>

언해문:害 니부메 當 ㅎ야<능엄6:27a>

다. 상심(傷心)<15a>, 상심병(傷心病)<14b>

원문: 當傷心自勅<내훈2上:36b>

언해문: 만드기 므스메 슬허 제 警誠 ㅎ리라 ㅎ다니
<내훈2上:50b-51a>

라. 슈상(殊常)<16a>

원문: 物態 | 殊當 ㅎ며<영가下:106b>

언해문: 物의 양지 상네 다르며<영가下:106b>

마. 습성(習性)<13b>

원문: 由汝習性이니<육조中:52b>

언해문: 네 빅흔 性을 브트니<육조中:53b>

바. 조심(操心)<14b>

원문: 其操心也 危 ㅎ며<맹자13:12a>

언해문: 心을 操 ㅎ이 危 ㅎ며<맹자13:12b>

사. 한삼(汗衫)<2b>

원문: 白絹汗衫<번노下:51a>

언해문: 빅 깃 한삼과<번노下:51a>

(4)는 한자어 ‘간당(肝腸), 님당(臨當), 상심(傷心)/상심병(傷心病), 슈상(殊常), 습성(習性), 조심(操心), 한삼(汗衫)’의 한자 표기가 확인된 한문 구절과 언해문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4가)의 ‘간당’은 『장수경언해』의 한문 원문에서 ‘肝腸’으로 나타나는데, 언해문에서는 ‘므슴’으로 언해되었다. (4나)의 ‘님당’ 역시 『능엄경언해』의 한문 구절을 통해 ‘臨當’을 확인할 수 있지만, 언해문에서는 ‘當 ㅎ

야로 언해되었다. 마찬가지로 (4다-바)에 제시한 한자어들이 한자로 표기된 형태도 한문 원문에서 볼 수 있으며, (4사)의 ‘한삼’은 『번역노걸대』에서 원문의 ‘汗衫’이 언해문에서는 한글로 표기되어 ‘한삼’으로 나타난다.

이제 위에 제시한 목록 가운데 몇몇 한자어를 살펴보면, 먼저 ‘가난’은 ‘간난(艱難)>가난’으로 어형 변화를 겪은 것인데, ‘간’의 ‘ㄴ’이 탈락한 것은 동음 생략 현상에 의한 것이다(조세용 1985가:459).

‘남진’은 ‘男人’에 대응된다. 日母에 속하는 ‘人’은 15세기에는 한자음이 ‘신’으로 주음되었으나 16세기에는 대체로 ‘인’으로 표기되는데, ‘男人’에서는 ‘진’으로 나타난다. 아래의 (5)는 『부모은중경언해』에 보이는 ‘남진’의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5) 가. 원문: 夫婿打罵<16a>

언해문: 남지느 티고 구지저도<16b>

나. 원문: 或隨夫壻 外郡他鄉<16b>

언해문: 또 남진 조차 다른 고향 가<16b>

(5)의 ‘남진’은 ‘夫婿’를 언해한 것이다. 『부모은중경언해』에는 ‘男人在世<2b>, 男人在世之時<3a>’와 같이 한문 원문에서 ‘男人’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때 ‘男人’은 ‘남편’이 아닌 ‘남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반면 『내훈』에서는 ‘男人’이 ‘남편’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파악되는 용례가 있다.

(6) 가. 원문: 爲丈夫喪次호고<내훈1:60a>

언해문: 男人이 거상홀 짜홀 밍글오<내훈1:60b-61a>

나. 원문: 男子 無故어든 不入中門호며 婦人이 不得輒室男子喪次니라
<내훈1:60b>

언해문: 男人이 緣故 업거든 中門의 드디 아니흐며 婦人이 男子의
거상하논 자해 곧 니르디 마롤디니라<내훈1:61a-61b>

(6가, 나)의 언해문에 나타나는 ‘男人’은 넓게는 ‘남자’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부모의 거상에 대한 내용이며, (6나)의 경우에는 뒤에 오는 ‘婦人’과 상응하는 것이므로 ‘남편’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7)에 제시한 ‘당성’은 ‘長常’이 한글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7) 원문: 恒吐煙炎<23a>

언해문: 당성 불쏘줄 토하야<23b>

‘長常’에서 ‘常’은 禪母 陽韻 3等 開口에 속하여 ‘상’으로 표기되는 것이 원칙인데, 『부모은중경언해』에서는 ‘당성’으로 나타난다. ‘성’으로 쓰인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이는 ‘長常’이 한글로 표기되어 국어 내부의 음운 변동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유근선 2021:118).

또한 ‘잠깐<10b, 12a, 16b>’은 ‘잠+ㄱ+간’으로 분석되며 16세기 언해서에는 ‘값간<칠대11b>, 잠간<십현7a>, 暫잠간<발심(서봉사판)7b>’과 같은 형태도 나타난다. 『월인석보』에 나오는 ‘暫間’에서는 ‘暫’이 훼손되어 있지만 ‘暫’으로 추정 가능하며, 『번역노걸대』에는 ‘暫時間<번노上:62b>’이 확인된다.

‘네도(禮度)’의 ‘禮’, ‘넴당(臨當)’의 ‘臨’, ‘인뉴(人類)’의 ‘類’는 來母字인데 ‘ㄴ’으로 표기되어 있다. ‘네도(禮度)’와 ‘넴당(臨當)’은 어두 위치에서 ‘ㄴ’으로 쓰인 것이며, ‘인뉴(人類)’의 ‘ㄴ’은 ‘인(人)’의 영향을 받아 비음화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스렴(思念)’의 ‘念’은 泥母字임에도 ‘ㄴ’이 아닌 ‘ㄹ’로 표기되었는데, ‘思念’은 15세기에는 ‘思:스念:넴<육조

下:22a>’으로 주임된 것을 볼 수 있으나, 16세기 불경 언해에서는 한글로 표기되어 ‘스럼<장수30b, 초발27b, 67b>’으로만 나타난다(유근선 2021:51-52).

다음으로, 15·16세기 언해 문헌에서 한자 표기가 확인되지 않는 일부 한자어는 다음과 같이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한자 표기가 확인되는 한자어〉

건실<7b>/健實<연산8-12-3>

계교<13b>/計巧<중종12-7-22>

녕솔<1a>/領率<세종10-11-9>

녕혼<14b>²⁰⁾/靈魂<세종14-8-13>

단장<2b>/丹粧<연산11-10-19>

동쌍<13b>/同生<태종14-5-7>

음탕<3b>/淫蕩<세종10-윤4-4>

이전<17b>²¹⁾/以前<태종1-4-6>

족당<13b>/族長<태종-18-4-4>

이들 중 ‘동쌍’은 『부모은중경언해』에서 (8)과 같이 ‘兄弟’에 대한 번역으로 쓰인 것이다.

(8) 가. 원문: 打罵兄弟<13a>

언해문: 동쌍도 티며 구짓고<13b>

나. 원문: 帶累兄弟<15a>

언해문: 동쌍도 더러이며<15a>

언해 문헌에서 ‘同生’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손아랫사람’의 의미로 쓰인 용례는 17세기 『노걸대언해』에서 확인된다(親同生<노걸상:15a>).

20) 녕호나<14b>

21) 이저녁<17b>

그리고 ‘녕술(領率)’의 ‘領’과 ‘녕혼(靈魂)’의 ‘靈’은 來母에 속하지만 어두 위치에서 ‘ㄴ’으로 쓰인 것이다.

끝으로 한자 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한자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9) 가. 구의<14b>

원문: 因此命終 無人救療<14a>

언해문: 인^ㅎ여 주거도 구의^ㅎ리 업서<14b>

나. 권당<부모7a, 16b>/식권당<부모16b>

ㄱ. 원문: 含悲告親族<7a>

언해문: 설운 므스믈 머굼고 친/칭호온 권당드려 닐오디<7a>

ㄴ. 원문: 自家骨肉 却已爲疏<16a>

언해문: 제 녀슬 권당으란 소히 ㅎ느니<16b>

ㄷ. 원문: 異姓他宗 情深眷重<16a>

언해문: 식권당으란 그지업시 디접^ㅎ고<16b>

다. 디접<16b>

원문: 異姓他宗 情深眷重<16a>

언해문: 식권당으란 그지업시 디^ㅅ접^ㅎ고<16b>

(9가)의 ‘구의’는 원문의 ‘救療’를 참고하면 ‘救醫’로 볼 수 있을 듯하나 그 용례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9나)의 ‘권당’은 『표준국어대사전』에 ‘眷黨’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친척’의 의미로 쓰인 한자어로 ‘鄉黨<내훈1:55b>’, ‘族黨<여훈上:41a>’은 보이지만, ‘권당’은 『몽어노걸대(1790)』에 나타나는 ‘眷黨<몽노5:9a, 6:16b, 7:18a>’이 확인될 뿐이다. 16세기 문헌인 『장수정언해』에서는 ‘眷親屬속<장수12a>’이 ‘권당’으로 언해되었으므로, ‘권’은 ‘眷’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黨/儻’의 대응 여부는 불분명하다.

(9다)의 ‘디접’은 『표준국어대사전』에 ‘待接’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待接<석상11:30a>’과 같이 문헌상에서 한자 표기도 확인되지만, 언해 문헌에서는 ‘對接<삼강烈:19a>’으로 더 많이 쓰인다. ‘待’는 定母 海韻 1等 開口에, ‘對’는 端母 隊韻 1等 合口에 속하여 모두 ‘딕’로 표기되므로 ‘딕접<16b>’의 ‘딕’에 대응되는 한자는 확정할 수 없다.

IV. 결론

이 글에서는 순한글로 작성된 『부모은중경언해』에 나타나는 한자어를 살펴 각 한자어에 대응하는 한자 표기를 밝히고, 그 과정을 서술하며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부모은중경언해』에서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는 그에 대응하는 한자 표기가 문헌 내의 한문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진다. Ⅲ장의 1절에서는 전자에 속하는 한자어들의 목록을 정리하였으며, 2절에서는 후자에 속하는 한자어가 15·16세기의 언해 문헌과 『조선왕조실록』에서 한자로 표기된 용례를 찾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구의, 권당, 딕접’은 한자 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한자어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은중경언해』의 한자어에 대한 고찰이자 16세기에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의 유형과 표기 양상을 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에 대응하는 한자를 확인하는 것은 한자음 연구 자료의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상의 논의는 한자어뿐 아니라 한자음 연구 자료와 범위의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인한, 『中世韓國漢字音의 分析的 研究』, 박문사, 2009.
- 남풍현, 「15세기 諺解 文獻에 나타난 正音 表記의 中國系 借用 語辭 考察」, 『국어국문학』 제39·40집, 국어국문학회, 1968, pp.39-96.
- 남경란, 「세심사판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의 국어학적 특징과 의의」, 『인문과학연구』 제37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pp.33-71 (DOI : 10.46270/SSW.37.2).
- 박철민, 「1766년 咸鏡北道 會寧府 萬景菴 刊行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에 대하여」, 『서지학연구』 제83집, 한국서지학회, 2020, pp.129-149 (DOI : 10.17258/jib.2020.,83.129).
- 방중현, 『一蓑 國語學論集』, 민衆書館, 1963, pp.316-321.
- 이옥희, 「彌勒寺 소장 『佛說大報父母恩重經』(언해)의 서지와 표기 및 음운 현상 고찰」, 『우리말연구』 제63집, 우리말학회, 2020, pp.5-45.
- 송일기·유재균, 「韓國本 『大報父母恩重經: 諺解·한글』의 板本 및 한글 서체에 관한 研究」, 『도서관』 제55(2)집, 국립중앙도서관, 2000, pp.25-54.
- _____, 「『佛說大報父母恩重經: 諺解』의 初譯本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제22집, 한국서지학회, 2001, pp.181-200.
- 신중진, 「栗寺本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국어학적 고찰」, 『관악어문연구』 제21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pp.185-212.
- 유근선, 「16세기 불경 언해의 한자음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유필재, 「華藏寺板 《父母恩重經德解》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84집, 진단학회, 1997, pp.227-237.
- 유창돈,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 이기문, 「근세중국어 차용어에 대하여」, 『아세아연구』 제8(2)집, 1965, pp.193-204.
- 이준환, 「음운론적인 면에서 살펴본 중세 국어 한자어의 성격」, 『국어사연구』 제30집, 국어사학회, 2020, pp.5-39.
- 이진호, 「‘독립(獨立)’류 한자어의 음운론」, 『한국문화』 제44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pp.201-216.
- 이호권, 「유교 이념의 불교적 실현, 龍珠寺版 『父母恩重經諺解』」, 『정조대의 한글 문헌』, 문헌과해석사, 2000, pp.151-167.

_____, 「父母恩重經諺解의 異本에 대한 研究」,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40집, 2005, pp.65-87.

조세용, 「漢字語의 改鑄・歸化 現象에 대한 研究 序說-後期 中世國語 文獻語를 中心으로-」, 『어문논집』 제24・25집, 안암어문학회, 1985가, pp.447-474.

_____, 「漢字語의 改鑄・歸化 現象에 대한 研究 序說(II)-近世國語・近代國語의 文獻語를 中心으로-」, 『논문집』 제4집, 건국대학교 부설 중원인문연구소, 1985나, pp.5-28.

_____, 「漢字語系 歸化語 중 死語化된 語彙에 관한 研究-中世國語의 韓字語系 歸化語를 中心으로-」, 『논문집』 제10집, 건국대학교 부설 중원인문연구소, 1991, pp.43-65.

『역주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1.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Abstract

A Study of Sino-Korean Words in *Bumoeunjunggyeong-eonhae*

Yu, Keun-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identity of the Chinese characters corresponding to the Sino-Korean Words written in Korean characters in *Bumoeunjunggyeong-eonhae*. Sino-Korean words in *Bumoeunjunggyeong-eonhae* can be divided into those that are found to have corresponding Chinese characters in the Chinese passages within the literature, and those that do not. Chapter III, Section 1 examined the Sino-Korean words belonging to the former group, and Section 2 identified the Chinese characters of Sino-Korean words belonging to the latter group in the *Eonhae* literature an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ritten during the 15th and 16th centuries. In addition, it was mentioned that there was some difficulty in confirming the respective Chinese characters of ‘*Guui* (구의), *Gwondang* (권당), *Daejeop* (딴집)’.

Key Words : 16th Century literature, Buddhist scripture, *Bumoeunjunggyeong-eonhae*, Sino-Korean words, Realistic Sino-korean

유근선

소속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후 연구원

전자우편 : goodyuu@daum.net

이 논문은 2021년 2월 13일 투고되어
2021년 3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3월 26일 게재 확정됨.